

위기, 누군가에겐 기회... 빈자리 꿰찬 백업들

LG 신인 박명근, 이민호 부상으로 첫 선발 기회
KT 주전 중견수 배정대 이탈에 김민혁 활약 위안
KIA, 나성범·김도영 연이은 부상에 이창진 '쏠쏠'

위기는 기회다. 주축 선수의 이탈로 생긴 팀의 공백이 누군가에게는 입지를 넓힐 계기가 될 수 있다.

LG 트윈스 박명근은 11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데뷔 첫 선발 출격이다.

2023 입단 신인인 박명근은 엄경엽 LG 감독이 일찌감치 찍은 자원이자. 엄 감독이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장 시절부터 황재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박명근을 추천하려 했을 정도로 기대가 크다.

덕분에 3라운드 27순위로 프로에 발을 내딛던 박명근은 LG 신인 중에는 유일하게 1군 스프링캠프를 함께 치렀고, 개막 엔트리에도 승선했다.

사령탑이 주목하고 있는 신인이라 하더라도 선발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왔다.

당초 엄 감독은 올시즌 박명근을 구원 투수로 활용하다 내년쯤 선발 가능성을 보려했다. 개막 후 박명근은 3경기에 나와 1½이닝 5실점 3자책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즌 초반부터 부상 변수가 발생했다. 이민호가 오른 팔꿈치 굴곡근 손상으로 이탈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겼다. 엄 감독의 선택은 신인 박명근이었다. 이민호가 자리를 비운 동안 박명근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1군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힐 수 있다.

주전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얼굴을 확보하게 된 팀이 더 큰 힘을 받게 되는 건 물론이다.

주전 중견수 배정대의 이탈로 시름이 깊은 KT 위즈도 김민혁의 활약에 위안을 얻고 있다.

최근 3시즌 연속 전경기에 출전한 '철인' 배정대는 시범경기서 왼 손등 골절 부상을 입어 시즌 출발을 함께하지 못했다.

배정대 대신 중견수로 출전하고 있는 김민혁은 5경기에서 타율 0.500(18타수 9안타) 3타점으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대타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던 김민혁이 초반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잡고 있는 분위기다.

KIA 타이거즈는 외야수 이창진의 활약에 위로를 받고 있다.

KIA는 주포 나성범, 김도영 등이 연이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시즌 시작부터 타선 공백이 커졌다. 팀의 위기 속에 기회를 얻은 이창진은 5경기 타율 0.421(19타수 8안타) 1타점을 때려냈다.

개막전이던 1일 SSG 랜더스전부터 매 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시즌 규정 타석은 채우지 못했지만 111경기 타율 0.301, 7홈런 48타점으로 쏠쏠한 활약을 보여준 이창진이 올해는 시작부터 소금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뉴스

KIA 이창진



100호골에도...손흥민, EPL 선정 30R '이주의 팀' 제외

아시아 선수 최조이자 역대 34번째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100호골에 성공한 손흥민(31·토트넘)이 EPL 이주의 팀에 오르지 못했다.

손흥민은 11일(한국시간) EPL 사무국이 발표한 2022-2023시즌 EPL 30라운드 '이주의 팀'에 빠졌다.

3-4-3 포메이션에서 스트리커는 엘링 홀란(맨체스터시티),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아스널), 마이클 올리세(크리스탈 팰리스)가 차지했다.

홀란은 사우샘프턴전에서 2골을 넣었고, 마르티넬리는 리버풀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렸다. 또 올리세는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도움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지난 8일 브라이튼과의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0분 오른쪽 감아차기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어 토트넘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올 시즌 리그 7호골이자, EPL 통산 100번째 득점이다.

손흥민은 영국 방송 BBC가 발표한 이주의 팀에는 이름 올렸지만, EPL 공식 이주의 팀에는 제외됐다.

EPL 이주의 팀은 잉글랜드 축구 전설 앨런 시어러가 선정한다.

한편 30라운드 이주의 팀 미드필더에는 EPL 통산 100호 도움을 올린 케빈 더 브라운(맨시티), 조엘링턴(뉴캐슬), 필립 빌링(버밍엄), 에베레체 에제(크리스탈 팰리스)가 뽑혔다.

수비수는 안젤로 오그보나(웨스트햄), 이브라이마 코나테(리버풀), 에런 완-비사카(맨유)가 선정됐다. 골키퍼는 아론 램스데일(아스널)이다.

뉴스

한국 피겨 간판 차준환·이해인, 내일부터 '팀 트로피' 메달 도전

일본 도쿄서 6개국 경쟁...한국은 첫 참가



차준환(오른쪽), 이해인

한국 피겨가 사상 처음으로 나서는 국제단 체전 대회인 '팀 트로피'에서 메달을 노린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대표팀은 1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월드 팀 트로피에 참가한다.

남자 싱글에는 차준환, 이시형(이상 고려대), 여자 싱글에는 이해인(세화여고), 김예림(단국대), 페어는 조혜진-스티븐 애드콕, 아이스댄스는 임하나-취안예가 출전한다.

2009년 시작된 팀 트로피는 격년제로 매년 일본에서 열린다.

ISU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피겨 단체전으로, 한 시즌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낸 6개국이 메달을 다툰다.

한국은 첫 출전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전에 나선 적은 있지만, 팀 트로피는 처음이다.

남녀 싱글에선 좋은 성적을 냈지만, 단체 종목인 페어와 아이스댄스에서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어와 아이스댄스에 외국 국적 선수가 합류하면서 경쟁력이 강화됐다.

페어에 나서는 조혜진은 캐나다 출생의 이중국적 선수다. 애드콕은 캐나다 국적이다.

이 둘은 2022년 팀을 결성해 이번이 첫 국제대회 참가다.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임하는는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국적이며, 취안예는 중국계 캐나다인이다.

임하나-취안예는 지난달 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땀다.

지난달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녀 싱글 동반 은메달을 목에 건 차준환과 이해인에 대한 기대도 크다.

차준환은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에서 개인 최고점인 296.03점으로 준우승했다. 한국 남자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건 처음이다.

이해인도 같은 대회 여자 싱글에서 개인 최고점인 220.94점으로 은메달을 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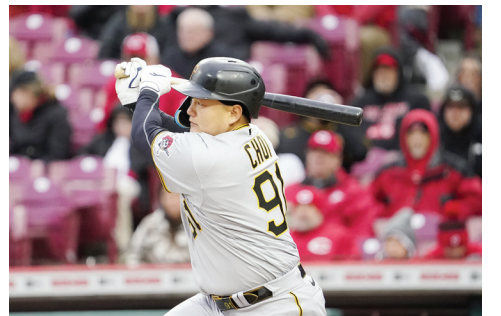
단체전인 팀 트로피는 종목별로 포인트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전 선수가 고른 성적을 내야 종합 순위에서 유리하다.

한국과 함께 일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6개국이 경쟁한다.

가장 최근인 2021년 대회에선 러시아(125점)가 우승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징계로 출전이 금지됐다.

러시아가 빠진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우승을 다툰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3위를 노린다.



침묵하던 최지만, 시즌 7경기 만에 첫 홈런 폭발

피츠버그 최지만(32)이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다.

최지만은 11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안타 하나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0-4로 끌려가던 2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상대 선발 좌완 프랭크 발데스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가운데로 들어온 7구째 94.9마일(약 153km)자리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쳤다. 타구는 그대로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포로 연결됐다.

최지만이 시즌 7번째 경기에서 때려낸 첫 홈런이다.

지난해 11월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된 최지만은 이적 첫 시즌인 올해 출발이 더뎠다. 이날 경기 전까지 6경기에서 타율 0.053(19타수 1안타)에 그치는 등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첫 타석에서 왼손 투수를 상대로 홈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어렵게 이날 경기에선 더 이상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5회 무사 2루에서 다시 마주선 발데스에 삼진을 당한 최지만은 6회 1사 1루에서는 2루수 병살타를 쳤다. 1볼-2스트라이크에서 받아친 발데스의 5구째 싱커가 2루수에 잡혔다.

9회 1사 후 마지막 타석에서는 세스 마르티네즈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087(23타수 2안타)가 됐다. 피츠버그는 휴스턴에 2-8로 졌다.

김연경 중심 도쿄올림픽 4강 멤버, V-리그서 다시 뭉치나

김연경 "몇몇 선수, 같이 뛰자고 얘기하고 있다"



배구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은퇴 의사를 접고 현역 생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10일 도드람 2022-2023 V-리그 시상식에서 남자부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뒤 인터뷰에서 친한 선수들로부터 함께 뛰자는 제안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몇몇 선수가 있다. 같이 뛰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워낙 잘 알고 친하다. 우선 제 결정이 중요한 것 같아서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김연경과 함께 자유계약(FA) 신분을 얻은 선수들이 새 팀에서 뭉치는 것이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에 FA자격을 얻은 선수들 중 베테랑은

김연경 외에 배유나(도로공사), 정대영(도로공사), 황연주(현대건설), 한송이(KGC인삼공사), 엄혜선(KGC인삼공사), 황민경(현대건설), 김수지(IBK기업은행), 김희진(IBK기업은행)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김연경과 도쿄올림픽 4강 진출을 합작했던 선수들이다.

김연경은 현대건설 양효진과도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연경이 우승이 가능한 팀을 협상 대상으로 꼽은 탓에 올 시즌 통합 우승에 실패했던 현대건설 역시 김연경 영입 후 보균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김연경은 여자부 전체 7개 구단 중 대부분과 협상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구단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다 오지는 않았다. 현재로는 그렇다"며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구단과는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1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2-2023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베스트7에 선정된 임명옥·김다인·배유나·양효진·김연경과 산타나·엘리자벳의 대리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